

우치난츄의 전통예능 활성화와 소수민족 정체성
-한국에서의 오키나와 연구의 쟁점

우치난츄란 오키나와의 방언으로 오키나와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오키나와 전통 예능 한국에서의 오키나와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일본 지역연구 속 오키나와 연구의 문제점에 대해 보면, 지금까지 오키나와 연구는 오키나와인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일본 본토의 시각으로써 다루어져 왔다. 이런 "오키나와인들의 침묵"은 400년 동안 이어진 본토에 의한 식민지 경험과 차별에 의한 소수자 의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오키나와 인들은 이하후유(伊波普猷)의 오키나와학(沖縄学)으로 대표되는 hidden transcript를 통해 저항해 왔다. 오키나와 연구의 쟁점은 구조로 바라 본 일본 식민주의, 동아시아 지역체제와 주체를 중심으로 본 소수민족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오키나와는 일본 식민주의 및 내부 식민주의 연구의 보고이다. 1609 이후 사츠마번에 의해 지배를 받아 사탕수수를 통해 착취당하고, 제국주의시대에는 전쟁에 의해,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미군기지 문제로 논란이 되어 왔다. 또 주체성 문제를 중점으로 본다면 오키나와를 일본의 한 지역이나 소수자 집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잠재적 민족이나 소수 민족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덧붙여 이하후유의 일류동조론을 벗겨낸 순수한 오키나와적 문화요소를 포함한 오키나와학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현대의 오키나와인들이 본토 문화와 전통 문화 사이에서 어떻게 그들의 문화를 보존 유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은 일본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일본 본토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오키나와를 연구할 수 있다. 또 오키나와의 노인 세대들은 한국인에 대한 접촉경험이 많고 일본 본토의 식민 지배라는 일종의 동류의식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친근한 접근이 가능하다.

진필수 선생님은 현대 오키나와의 전통예능 활성화(ex:エイサー 등)와 그들의 자발적 향토사 편찬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Q: 오키나와에서의 향토사의 의미?

A: 오키나와의 촌락사는 재구성할 수 있는 일정한 틀이 존재한다. 하나의 적정규모로써 생각되는 섬 단위에서 위에서 말한 일정한 틀에 의해 역사를 재구성한다. 오키나와 지역사 협의회에서는 오키나와전, 미군정 등 오키나와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섬 단위의 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있다. 따라서 오키나와 향토사는 촌락 단위의, 섬 단위의 연구에서 오키나와 전체의 단위로 강화되고 있다.

Q: 이와후유의 일류동조론이 레토릭으로써 뭔가 감춰진 것이 아니다. 일류동조론을 벗겨내고 본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와후유의 논리(외부적으론 일류동조론 잠재적으론 민족적 의식고양)을 저항의 수단으로 본다면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

A: 민족주의 등 다른 사상을 제외하고 보면 이와후유의 일류동조론을 한국에서 말하는 친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후유의 연구가 아니었다면 오키나와의 민족적 문화가 잔존할 수 있었을까. 결국 오키나와 문화에 대한 이와후유의 연구는 류큐왕국사라는 오키나와 독자적 문화 연구로 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